

지리산 댐·케이블카 등 건설 재추진

지리산 인근 실상사 등 5개 사찰 '불교연대(가칭)' 결성·공동 대응 결의

4대강 정비사업의 여파가 지리산까지 밀어닥쳤다. 2001년 백지화됐던 지리산 댐을 비롯해 케이블카 등 지리산 개발사업이 MB정부 하에 다시 궤도에 오름에 따라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국토관리청 중앙하천 심의위원회는 6월 18일 '지리산 댐'이 포함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가결했다. 국토해양부 등 건설당국은 경남 함양댐(지리산 댐) 등 3곳에 댐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리산 댐'은 지난 1997년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2000년대 초 백지화된 바 있다. 실상사 주물 등으로 도법, 수경 스님 등의 주도로 불교환경운동이 본격화 된 계

기가 됐다.

이번에는 4대강 정비 사업과 부산과 대구 등의 새로운 식수원 확보 문제와 맞물려 추진 강도가 더욱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6월 9일 4대강 정비사업으로 줄어드는 부산시 식수원 해결 문제에 대해 "경남도와 TF팀을 구성, 지리산 물이 용원적으로, 수량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10일 함양군을 방문해 "함양댐 건설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하나이며, 군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한 남강댐 치수 증대사업이 경남 서부 주

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에 부딪치자 다른 방안으로 재추진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리산 댐이 건설될 경우 실상사 1.5km 전방까지 물에 잠겨 국보 제 10호인 백장암 3층석탑과 보물 10여 점 등 보유 국보급 문화재의 훼손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실상사와 쌍계사, 화엄사, 벽송사, 대원사 등 인근 5개 사찰도 10일 실상사에서 첫 모임을 가진데 이어 26일 쌍계사에서 불교연대(가칭)를 결성하고 지리산댐 백지화를 위해 범불교적 대응으로 나설 것을 밝혔다.

한편, 댐 건설과 더불어 관광수익을 위한 케이블카 건설도 본격화되

고 있다. 산청군은 2011년 착공을 목표로 제석봉부터 중산리까지 5km에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 중이며, 전남 구례군도 온천관광지에서 노고단까지 4.5km에 케이블카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경남 함양군도 백무동에서 제석봉 3.9km 구간에 대해 최근 용역 조사에 들어갔으며, 전북 남원시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뱀사골에서 정령치 3.4km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이다.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종결 스님, 연관 스님 등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5월부터 천왕봉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설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덕현 기자 dhevala@buddhapia.com



조계사,故 노무현 전 대통령 5재 봉행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는 6월 26일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5재를 봉행했다. 5재에는 영가법문을 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축사와 한명숙 전 총리, 선진규 원장,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정상급 민주당 대표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49재 봉행에 앞서 노건호씨는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노씨는 스님에게 고인의 49재 행사를 매주 사찰에서 봉행하고 범불교적인 참여와 지원을 보내는 점 등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노 전 대통령의 비운을 써줄 것을 청했고, 지관 스님은 이를 수락했다. 글=조동성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서불대생 '임시이사 파견' 촉구

6월 24일 교육부 방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사장 지욱, 이하 서불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불대 학생 54인이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 임시이사의 조속한 파견을 촉구했다.

서불대 학생회는 6월 24일 교과부 후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학생을 불모로 무소불위 권력을 남용하는 임시이사는 필요없다! 임시이사 파견하라!"는 제의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서불대 학생회는 "교과부의 황윤식 총장지위를 인정하는 계교가 있다"는 황 총장

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정식교수들을 모두 해임했다"며 "이사회는 난맥해져서 끝없이 치달으면서 학생들의 고통은 끝없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회는 "학교측이 고용한 용역을 피해 음식점을 전전하거나 월세방을 얻어 수업을 들어야 했다. 더 이상 학생들의 인권 을 유린하는 이사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불대 학생회는 △교과부의 즉각적인 임시이사 파견 △김명권 교수 등의 징계를 취소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 △교내 CCTV 철거 △법인의 학사행정 관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조동성 기자

불교문화회관 문 활짝

안양 한마음선원 준공법회 봉행



6월 21일 문을 연 안양 한마음선원 불교문화회관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이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각 신도단체들의 봉사 와 문화강좌 등 신행활동의 구심 이 될 불교문화회관을 열었다.

한마음선원은 6월 21일 오후 2시 선원 인근에 위치한 한마음선원 불교문화회관 준공 화합제와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 혜원 스님을 비롯한 전국 지원장스님과 사중 스님들, 박원식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 등 1500여 명이 동참해 해관 준공을 축하했다. 화합제는 삼배와 <뜻으로 품 받아심경> 봉독 등으로, 준공법회는 경교보고와 주지스님의 인사말씀, 박원식 신도회장의 축사, 공로패 증정, 축가, 사후서원에 이어 테이프 절단과 헌관식으로 진행했다. 행사에서 주지 혜원 스님은 설

계 및 감리를 맡아 불사를 이끌어 온 김기상 수석부회장(건화종합건축회사 대표)과 공사를 맡아 열과 성을 다 해온 에 팀 건설

이명규 대표에게 각각 공로패를 증정했다.

한마음선원 불교문화회관은 1,075㎡의 넓이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은 1998㎡다. 지하층은 교육연구시설로 150명 이상의 교육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실과 교육실 모인방 창고 기계실 등이 들어섰다. 지상1층은 천정 높이 8m의 대강당으로 대규모 장엄물 등 시설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체육관과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지상 2층과 3층은 사무실과 각종 모임방으로 꾸며져 교육실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임연대 기자

"북한 주민 구호활동 지속돼야"

평화재단 심포지엄서 법륜 스님 강조

"앞서서 강경이나 햇빛이나 하는 것은 소용없다. 직접 가서 보면 북한 주민 고통을 알 것이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사진)은 6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평화재단·코리아아메리카 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여는 말로 이렇게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주 변국들의 강경노선, 남한의 PSI 참여 등 연일 악화되는 한반도 긴장 속 에 북한 주민을 위한 구호활동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재단이 독립 통일 20주년을 맞아 남북통일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마크 치맥 콘라드 아메리카재단 한국 소장, 이부영 국회의원, 이수혁 전 독립 대사 등 통일 및 정관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법륜 스님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동·서독 통일 과정과 서독 내부 갈등 수업을 재조명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유르겐 아레츠 에 북한 주민을 위한 구호활동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덕현 기자



측면이 분명하게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한편석 고려대 교수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남남갈등 해결과 북체제변환을 위한 북한전문 엘리트 양성 △NGO 교류 및 통일 연구 활성화를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70년대 1만원권 도안 석굴암 불상될 뻔

종교계 반대로 무산

6월 23일 5만원권의 출현으로 화폐의 상징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36년 동안 최고액권 역할을 담당해온 1만원권 원주인공이 '석굴암 부처님'이었다는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1970년대 경제 성장에 맞춰 박정희 정부는 1만원권이라는 고액권 도입을 추진했다. 1972년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의 선정위원회는 1만원권 앞면에 국보 제24호 석굴암 본존석

가여래좌상을, 뒷면에는 불국사 전경을 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인쇄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종교계 반대로 석굴암 1만원권은 무산된다. 기독교측이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일'이라며 반대했으며, 불교계도 '신성한 부처님에게 불경죄를 저지르는 처사'라며 반대했다. 시뻐까지 마치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승인도 받았지만 결국 이듬해 세종대왕과 경복궁 근정전으로 바뀐다. 노덕현 기자

"기독교 학계에 비해 불교계 타종교 연구 안해"

참여불교재가연대 창립 10주년 심포지엄

"불교인은 기독교를 알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한국 불교는 교학과 수행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수준인가? 종교차별과 편향의 현실을 타개하기 보다는 오히려 개신교의 형태를 모방하는 것은 아닌가?"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진)가 6월 20일 창립 10주년 기념 '종교권력의 시대, 불교의 상상력'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현 정부의 잘못된 종교 전략에 대한 비판 못지 않게 불교계의 성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토론에 참석한 최준식 교수(이화여대 한국학)는 "불교 종단이나 학계에서는 기독교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없는 반면 기독교 학계는 불교나 동양 종교에 해박한 학자들이 많다"며 "상대를 모르고 기독교의 엄청난 파상공세를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재단법인 씨알 백찬홍 홍보위원장은 "불교계가 현 정권의 친 기독교적 행보를 비판하고는 있지만 불교계 역시 오랫동안 권력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기독교가 권력화 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인철 교수(한신대 종교문화학과)가 '현대 한국의 종교화 국가권력'을, 조은수 교수(서울대)가 '불교운동을 위한 창조적 상상력'을 각각 발표해 불교계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망했다. 이상연 기자

www.dongsanbud.net

행복의 씨앗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의 다툼과 삶의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불교는 일상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본 대학은 불교를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조계사앞 동산불교회관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모시고, 최초의 2년제 불교대학으로서 많은 불교지도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불교대학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오늘 동산불교대학을 만나십시오!






2009년도 35기 신입생 모집안내

모 집 학 과 ■ 불교학과 (2년과정, 토요일, 목요일, 통신반)
불교다도학과(3년) / 불교미술학과(3년) / 불교한문학과(2년) / 사찰음식문화학과(1년)

불교학과 교과목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부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교 수 진 ■ 불교학과 • 무진장스님(본대학 학장) • 박 중(종교학부) • 김형준(종교학부)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보각스님(승가대학교) • 최중석(금강대학교) • 이명래(충남대학교) • 김호규(동국대학교) • 윤열수(문화재단연구원) • 중석스님(승가대학교) • 정영수(승가대학교) • 최봉수(동국대학교) • 주명철(동명대학교) • 정병조(동국대학교) • 차차석(동명대학교) • 김상현(동국대학교) • 모주스님(동국대학교) • 법상스님(승가대학교) • 불교다도학과(박희준교수) • 불교미술학과(법민스님) • 불교한문학과(심재동교수) • 사찰음식문화학과(정산스님)

모집인원 및 개강일 ■ 불교학과 (8월 8일 입학식) 180명,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 불교다도학과 : 30명, 9월 8일(화) 오후 2시 ■ 불교미술학과 : 20명, 9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 불교한문학과 : 30명, 9월 3일(목) 오후 7시 ■ 사찰음식문화학과 : 20명, 9월 9일(수) 오후 2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대학 사무처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732-1206~8, FAX 732-1207



동산불교대학·대학원 학장 무진장 / 이사장 안동일